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애민헌신의 한생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끊이지 끊이지 오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송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각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

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

었다.

와 력사가 부여한 자기들의 무거운 책

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

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굳은 결의

를 다지였다.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사상과 불철주야의 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이시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고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관철에서 시대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제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제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사회의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문화통일협회, 제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축전회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

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존엄 높은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언젠가 총련에 귀국위업과 더불어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며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어버이이시라고 축전들은 칭송하였다. 축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오늘 총련의 강화발전과 제일동포들의 행복 한 삶을 위해 모든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이러한 축전들은 밝혔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애국과업의 집행단위인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올해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등교육실시 75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축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애국과업의 집행단위인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올해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광명성절 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알제리에서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경위원회 제1비서는 경축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드시어 조선의 부강발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조선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온갖 발악적인 책동과 엄혹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는것은 바로 그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 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도 거대한 공헌을 하신 참다운 혁명가이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아무르주지

부위원회 제1비서는 강연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결출한 령도자이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전진하였으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우크라이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경축모임에 참가한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민족의 위대한 아들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다. 그의께서는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로골화되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펼치시어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하시였다. 오스트리아 원 김일성-김정일의 연구소조 책임자, 알제리-조선친선협회 위원장도 토론회에서 조국의 립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진정

한 인민적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 김정일각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광명성절경축 인터넷사 진전시회가 6일과 8일 로씨야에서 개막되었다. 《빠뜨리으며 모스크바》를 비롯한 인터넷홈페이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었다. 또한 절세위인께 수많은 나라에서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와 선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올렸다. 홈페이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그이께서 지니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품모와 더불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청송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심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와 선물들에 뜨겁게 어려있다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월 16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장소인 만수대에 술극장에는 주체예술의 개화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거룩한 체취와 숨결이 력력히 어려있는 유서깊은 극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한 기념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환희와 걱정이 차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에는 국무위원회 연수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장중한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였다.

제1부공연무대에는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빛나라 정일봉》을 비롯하여 우리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찬가, 그리움의 송가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2월의 봄빛을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주체혁명의 장구한 려정우에 인류가 알지 못하는 애민헌신의 숭고한 려사를 수놓아오신



퍼지며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당기를 힘차게 날리며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의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과시한 공연은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녀성독창과 혼성합창 《인민은 일편단심》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재청에 따라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며 우리 인민들이 애창하여온 전인민적찬가 《친근한 이름》이 다시금 울려 퍼져 장내를 무한한 걱정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당중앙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갈 불타는 맹세를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준 출연자들의 공연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열렬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진감하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출연자들에게 전달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중임을 자각하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크나큰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천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할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드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승리로 확신성있게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위인 송가들이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의 우리 국가의 강성변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고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새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의 노래가 련이어 울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드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승리로 확신성있게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위인 송가들이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의 우리 국가의 강성변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고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새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의 노래가 련이어 울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드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승리로 확신성있게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위인 송가들이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의 우리 국가의 강성변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고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새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의 노래가 련이어 울려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분출되며 장내를 울리였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의 눈보라》,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친근한 이름》으로 막을 내린 제1부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은 혁명의 천만리길이 얼마나 값높은 인생의 영광이였는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원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의 노래로 시작된 제2부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이 어린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조국강산에 하넉히는 인민의 그리움, 불타는 충성의 맹세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인준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어흘렀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충성의 맹세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 탄생 79돐 경축 사진전람회가 중앙과 도들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들을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부강



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 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전하는 사진문헌들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수도 평양과 각 도의 극장, 야외무대들에서 경축공연이 있었다.

평양대극장, 3대혁명전시관 앞에서는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야외공연무대를 펼쳤다.

출연자들은 려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도전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우에 강대하고 무궁변영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억년기들을 마련

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무대가 펼쳐졌다.

창건지리, 려명지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과 각 도 소재지들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장식들은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파업관철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파업관철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

뜻깊은 2월명절을 맞이한 조국강산에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굽어쳐호르는 속에 광명성절경축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며 함창과 무용 《우리의 김정일동지》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남성독창 《그이의 하루》, 혼성2중창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합창 《그이의 한생》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뜨거운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가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혁명생애를 숭엄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열화같은 애국의 심장을 지니시고 온넉과 심혈을 다

기울이시여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피아노를 위한 합창 《인민사랑의 노래》, 녀성민요독창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은 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녀성4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 남성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 조로》, 무용 《자강력의 기수들》 등의 종목들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혁신과 전진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나며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음을 보여준 공연은 혼성6중창과 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로 끝났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16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관현악 《눈이 내린다》로 시작된 무대에는 남성독창 《장군님은 별재산의 아들》, 즉관중주를 위한 관현악 《정일봉의 봄맞이》, 관현악 《매혹》, 녀성2중창 《아 그리워》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한평생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관현악의 장중한 울림과 형상세계로 펼쳐보였다.

뜻깊은 2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불세출의 대성인, 민족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교향곡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중에서 제3악장 《인민사랑의 노래》, 관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들으며 관람자

들은 한없이 넓고 파사로운 품에 인민을 안으시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총직하게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 다해 받들어갈 온 나라 인민의 일편단심을 잘 보여준 피아노를 위한 관현악 《대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현악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난 음악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따라 당 제8차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 천만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의 행군길 역세계 이어가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강산에 뜨겁게 차넘치는 경사스러운 2월,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늘가에 높이 치솟아 빛나는 정일봉을 배경으로 하여 소백수의 유정한 물소리 들려오는 천고의 밀림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는 백두산 밀영고향집.

이 향집은 귀틀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으로 들으며 성장하셨다.

귀틀집은 비록 크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것을 새기여 주는 력사의 큰집인가.

이 고향집이 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도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도 있으니 언제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민족자주위업계승의 피줄기가 이어져 력사의 이 고향집 트랙에 주체108(2019)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슴 찡는 사연을 엮으셨다.

지금도 눈앞에 어리여 온다.

빨찌산의 군복차림을 방불케 하는 전투복차림의 장령들과 함께 백두의 전구들을 찾아 준마행군을 단행하시던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백두밀영의 차디찬 눈부지우에 앉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하많은 사언고 호르는 소백수물결우에 소중한 추억도 실어 보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트랙을 가까이하시자 걸음을 멈추시었다.

동기와외부우에 백두의 하늘을 떠이고 오늘도 옛 모습 그대로 서있는 낫은 귀틀집.

장군님의 숨결이 따스한 훈풍이 되어 흐르고 어머니의 정깊은 체취가 서리꽃편이갈순항기에 가슴 뭉클 안겨

오는 고향집트랙. 얼마나 그리우셨던 장군님의 고향집인가. 얼마나 와보고싶으셨던 백두산밀영고향집인가.

성지의 한줄기 시내물, 하나의 조약돌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력력히 깃들여있는것만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총포성 울부짖는 항일의 전장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백두의 눈보라소리를 자장으로 들으며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를 안으시고 일찍부터 위대한 혁명가, 미래의 평등자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추어 나가시었다고 회회같이 추억하시는 그의 심중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못건디게 갈마드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은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에서도 늘 장군님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하시며 조용히 는 굽적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어머니장군님이 못건디게 그리울 때마다 그의 마음이 달려가곤 하신 곳은 백두산 밀영고향집이었다.

백두산에는 우리 장군님의 고향집이 있다고, 백두밀영고향집은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준 혁명의 고향집이라고 늘 말씀하곤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하기에 있을수 없는 12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트랙앞에 서시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 걷어오른 우리 혁명의 력사를 다시금 돌이켜보시 력사

의 모진 풍파를 헤치시며 강대한 이 조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고, 우리 혁명의 년풍마다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력사와 업적을 떠나 어찌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력사를 돌이켜보실 때마다 이렇듯 제일먼저 소중히 안아보곤 하시던 백두밀영고향집이 그의 지척에 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향집 트랙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몇걸음만 내짚으시면 백두산 밀영고향집트랙에 들어서시련만, 몇걸음만 더 옮기시면 귀틀집안에 정히 보존되어있는 장군님 어린시절 사용하시던 나무편종, 쪽무이지도 보실수 있으리만 그이께서는 어이하야 결연히 돌아서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때 없이 찾아가고 스스럼없이 안기곤 하는 고향집트랙이건만 백두산밀영고향집을 그처럼 뜨겁게 가슴에 안고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왜선뜻 들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고향집 트랙에 멧뿔이 들어설수 있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 장군님의 유훈을 꽃피워 이 나라, 이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특출하고 위대한것인가.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업적, 고난과 시련의 역풍이 불어오는 속에서도 인민을 이끄시어 이 땅우에 창조와 건설의 대전쟁기를 펼쳐주신 그 업적,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더

욱 굳어지신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업적은 이처럼 하늘에 닿으리만 그이께서는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스스럼없이 안기곤 하는 고향집트랙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옮기실 때 그의 심장에서 새차게 고동친것은 장군님의 애국념인, 강국구원을 기어다 풀어드리고 고향집트랙에 멧뿔이 들어서리라는 불타는 맹세였다.

정녕 크지 않아도 백두산 밀영고향집트랙에 들어서시련만, 몇걸음만 더 옮기시면 귀틀집안에 정히 보존되어있는 장군님 어린시절 사용하시던 나무편종, 쪽무이지도 보실수 있으리만 그이께서는 어이하야 결연히 돌아서시었다.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때 없이 찾아가고 스스럼없이 안기곤 하는 고향집트랙이건만 백두산밀영고향집을 그처럼 뜨겁게 가슴에 안고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왜선뜻 들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고향집 트랙에 멧뿔이 들어설수 있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 장군님의 유훈을 꽃피워 이 나라, 이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특출하고 위대한것인가.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업적, 고난과 시련의 역풍이 불어오는 속에서도 인민을 이끄시어 이 땅우에 창조와 건설의 대전쟁기를 펼쳐주신 그 업적,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집보다 더 소중하고 추억에 남는 집은 없다고 한다.

어머니장군님께 있어서 고향집추억은 그 누구보다 더 강렬하고 남달리 예뻐한것이였다. 그 추억은 빨찌산의 총성을 자장으로 들으시던 맛 있을 그날에 대한 추억이였고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눈물겨운 추억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향집앞에서 부디 독사진을 남겨주시었으면 하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에 장군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아직 수령님과 어머니의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트랙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트랙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트랙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트랙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이처럼 고향집트랙과 더불어 념원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들이 모두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겠다. ...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려는 희생적인 헌신의 일념때문이었다.

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기쁨과 행복의 새세상을 마련해주시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새바랜 야전솜옷 소매가 다 닳도록 벗지 못하고 눈보라강행군을 하시고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으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리시었다 어머니장군님 남기신 가슴저미는 말씀.

내 한생을 쥐어짜보던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남는게 없다. ...

그이의 한생은 말 그대로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한생, 혁명의 힘찬 전진을 위해 자신을 초월치려 태우신 희생적인 헌신의 한생이었다.

어머니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땅 한끝까지, 서해열점지역의 섬초소들까지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장님 자신과 가정우에 조국과 인민을 놓으시고 불철주야 애국애민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삶을 세월이 천만년 흘러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세대와 세기를 이어 바쳐가시는 애민헌신의 삶은 이 땅우에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력사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새겨져있는 진리의 길, 신념의 길,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어오신 애국의 길, 백두의 행군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철석의 믿음과 의지를 안고 공화국인민들은 모두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로의 행군길을 이어가며 류레없이 간고하였던 지난해에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새해 2021년의 첫아침부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대진군을 벌리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애센 신념의 자양분으로 안겨주시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새로운 혁신과 기적의 불바람이 백두의 칼바람마냥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백승의 기치인 이념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은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계 이어나가는 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의 밝은 지평이 열려져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2020년 2월 촬영

인민생활향상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풍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일념이 짙차있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 없이 높이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변함없이 내세우시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들도 많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의 힘을 기울여온 당과 국가는 없다.

당과 국가가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령도는 가장 어려웠던 지난 세기말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방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 돌아보시는 생산현장에서는 한창 무리들을 조립하고있었다.

생산자들의 작업모습을 눈여겨보시던 어머니장군님께서 자못 기쁜 표정을 지으시며 이 공장은 무리들을 잘 만든다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확실히 무리들을 만드는 데서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무리하면 이 공장부터 생각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조립중에 있는 무리들 한개를 손수 드시고 이 무리들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있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었다.

일군들이 잠시 망설이오

를 때 그이께서는 한 일군을 바라보시며 어서 설명해주라고 하시었다.

그 일군이 이 무리들은 농촌문화주택에 달아주려고 얼마전부터 생산하고있는 가정용 무리들인데 벌써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문화주택에서 사용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용무리들을 만들어 농촌문화주택에 달아주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전기로 짓고 난방도 전기로 하고 거기에 무리들까지 달아놓으면 우리의 농촌은 더 살기 좋아질것이라고 하시었다.

이처럼 인민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었다.

무로의무교육, 무상치료제

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실시되었고 수많은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와 가금생산기지를, 기초식품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적투자가 돌려지게 되었으며 인민을 위한 명승지와 문화휴양지, 극장과 영화관, 금양봉사기지가 훌륭히 꾸러졌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인민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나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석철호

시 소원

유현의
뵈고싶어 어머니를 뵈고싶어
꽃을 안고 오른 만수대 언덕
눈길 들어 우리라면
숨겨진 언덕 그리움의 이 언덕우에
야전솜옷 입으시고 서계시는 장군님
바람에 야전솜옷자락 날리시는
장군님은 환하게 웃으시건만
그이의 야전솜옷 바라보는
이 눈가에 뜨겁게 고이는것이여
가슴은 왜 이따도 쓰러오는것인가
세월의 찬눈비에 젖고졌던 솜옷
가서야 할 길 멀고도 멀어
언제 한번 말릴새 없었던 그 솜옷

유현의
오늘도 어머니장군님
그대로 입고계시니 이 마음도 젖어
옵니다
언제 한번 따스한 아랫목에
려장을 푸시고 편히 쉬신적
있었습니까
장설이 덮였어도 끝내내 헤쳐가신
그 헌신의 수만리장정에
무수히 내린 찬눈 그으시느라
잠시나마 들어서신 처마가 있었습니까
안기어올 때엔 행복에 겨워
어머니품의 따스함만을 알았던 우리
장군님의 그 단별솜옷

유현의
간절합니다 소원입니다
언제나 여기 만수대 언덕우엔
세월을 당겨 따스한 봄바람 불어
왔으면
우릴 위해 한생토록 찬눈을 맞으신
장군님
만발한 꽃속에 그옥한 향기속에
어머니장군님 계시었다면
가슴에 넘치는 이 진정
우리 장군님 영원한 봄날에 모시고
기쁨만을 웃음만을 드리고싶어
그리움만 불타는것 아닙니다
우리 소원 더 붉게 타는 만수대 언덕
입니다

시 사진에 대한 추억

김송림
그리고 굳이 사양하시었다면
한장 또 한장
하많은 사연 더듬어 번쳐보노라면
그처럼 정을 다해 품들어 가귀오신
이 나라 산천이 다 어리여있고
혈육의 정을 나눈 인민의 모습 다
있건만
여기 백두산밀영고향집
자신의 생가앞에서만은
한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으신 장군님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집기념사진이
아, 우리 장군님께만은 없으셨나니
어딜 가나 인민이 아뢰이는 진정
그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싶다는
무량없는 청은 가까이 들어주셨건만
어이하야 고향집앞에서만은
한장의 사진마저 남기지

김송림
우리 장군님 한생에 남기신
뜻깊은 사진은 그 얼마였던가
인민을 찾아가시던 품에 안아
병사를 만나시던 다정히 곁에 불러
함께 찍으신 사진 헤아릴길 없으라
말해다오, 백두산이여 소백수물결이여
우리 인민들이 잘살게 될 때
꼭 다시 와 사진을 찍겠다는 약속 남
기고
트랙을 나서신 우리 장군님
그날의 장군님 심중에
뜨겁게 고메친것 그 무엇인가를
어이 물어서 알라
고향집을 나서신 그 걸음으로
눈보라강행군길 이어가신 장군님
그 헌신의 위대한 자욱자욱이
인민행렬차에서 멈추신 심장의 마지막
고동
그이의 숭고한 뜻 다 말해주거늘
자신의 한생 인민과 한피줄로 이어
놓으셨기에

김송림
자신의 한생 인민을 위한것으로 정하
셨기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꽃피우기 전
에는
고향집트랙에 멧뿔이 서지 않으리라
같은 맹세 품고 나서신 우리 장군님
비록 백두의 고향집앞에서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셨어도
그날의 위대한 맹세를 인민이 알고
고향집트랙에 서계시던 그 모습은
인민의 가슴에 깊이깊이 새겨져있거
니
위인의 용기가 력력히 살아숨쉬는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우리는 보노라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백두의 붉은기 높이 휘날리시며
승리와 영광에 불이 우리를 촉복해
주시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다함없이 고향의 마음을 담아

수정공예 《정일봉이 솟아오른 백두광명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106(2017)년 2월 나이제리아부총리보당 전국위원장님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그는 조선이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김정일각하께서 생전에 자립적경제로 대를 보다 든든히 꾸러놓으시였기에 문이라고 하면서 그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령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하여 그는 자신이 직접 선물도안을 착상하고 이롭나 제작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가공, 완성하여 수정공예 《정일봉이 솟아오른 백두광명성》을 마련하였다.

밀탄에 백두의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있는 정일봉의 장엄한 모습이 새겨지고 그 우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떠오르는 별이 금빛으로 형성된 선물은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 올린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본사기자



첫해 진군부터 신심드높이

지금 새해의 힘찬 진군을 벌리고있는 공화국인민들앞에는 새로운 승리의 밝은 길이 활짝 열려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정세에 립각하여 국가경제도대의 재정비와 발전 그리고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밝혀주시었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전진을 저해하는 주객관적 요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이 분석총화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 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이 밝혀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며 더욱 확실해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

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첫해부터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인민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를,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5개년계획은 구래의연하고 진부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올해작전도, 설계도인 계획작성에서 나라이는 편향들을 전면적으로 분석비판하시고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보고에서 올해에 공화국의 인민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에 립각하여 공업, 농업, 경공업, 건설분과로 나뉘어 분과별회의들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올해 각 부문별사업방향과 전진목표들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서가 채택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면서 본 전원회의에서 우리 혁명사업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당 제8차대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들

에게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 과업들을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키려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와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보여주었다고 언명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명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로고는 그 얼마였는가. 끝없는 사색과 헌신으로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도 사랑하는 인민에게 우리의 충정을 곁얼반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그이의 진정애 넘친 말씀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의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긍지를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완수할 열의를 안고 각오와 지향, 사고방식에서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잠도리를 단

단히 하고 치밀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으며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은 올해의 힘찬 진군길에서 영예로운 혁신자로 자랑떨치기 위하여 하루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내각에서는 모든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을 수자적으로 정확히 장악하는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경제부문들간 유기적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리고 작전을 심화시키고있다. 진정 새해 정초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헌신으로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은 그 어떤 침체나 답보도 모르고 사회주의 새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크게 내걸고있는것이다. 리영수

인민을 위한
별사복무의
길에서

승고한 정치리념과 리상

주제106(2017)년 5월 어느날이던. 인민생활향상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부무할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리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

한 정치이라고, 나는 모든 사색과 활동을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철저히 지향시키고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 한 인민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나의 리상이라고, 온 사회가 단합되고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인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네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수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새로 꾸린 이불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며 제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당의 경영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영공정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영정책

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누구도 우리 당 경영정책이 옳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고, 경영공정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갈 의지에 넘쳐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과 전진의 실천강령에 무한히 고무되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설계도따라 주체위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위한 것은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열의이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전진길에 펼쳐나신 공업부문에서는 온갖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은 단계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라의 만아들기실을 다하려는 용기와 자신심을 안고 중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선철과 강철, 규소철, 자철정광, 갈철피광, 내화벽돌, 전극 등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화학공업성 일군들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면서 현행생산계획과 단계별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와 대책들을 탐구하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는 란광, 광산들에 보내줄 채취설비를 현대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성있는 작전안들을 세우고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탐사와 굴진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기 위한 보장전략을 세우고 확보전략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더 많은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모를 막고 올해 중심목표를 편성하였다.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전투장마대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끊이지 울려나오고 있다. 《오늘의 당대회결정관철전은 조선로동당의 존엄사수전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기겠다.》 ...

조국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인민의 이불같은 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나라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를 매일, 매 순간 심장으로 절감하며 그이만을 따르는 길에 찬찬한 미래와 번영이 있음을 신념으로 체득한 공화국인민이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어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속



세기를 이어 높이 울리는 총성의 노래

지난 1월 중순 평양체육관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총대공편 《당을 노래하노라》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며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친 공연종목들 가운데는 피아노2중주와 편현악과 인민이 심장으로 더친 위인송가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금시라도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빚는것만 같고 귀가울리면 장군님의 우렁차고 힘찬 음성들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누구나 솟

독출한 예술적천품과 비범한 령도적수완에 대하여 실지 체험을 통해 잘 알고있던 예술인들은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친애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며 따랐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나신분》, 《문무를 겸비하신분》,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분》, 《한없이 겸손하시고 소탈하신분》... 사람들은 모여있으면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인민들의 마음은 자나깨나 그이께로 달려갔다. 이러한 열렬한 흠모심과 친애하는 그이를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받들며 오시려는 인민들의 순결한 사상감정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곡

이 되어 나온것이 바로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이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그리는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과 이기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끝없는 사랑 그리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쳐온다 해도 오직 한마음 장군님께 대를 이어 총성다하라는 인민들의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지만 위인칭송의 마음은 분출하는 용암마냥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노래는 온 나라에 급속히 퍼져갔다.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는 이처럼 인민이 짓고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 전인민적총진군가이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노래가 명곡이 되고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를 들으며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서!

남조선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당 사이의 비난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민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고 한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여야당이, 후보들간의 논쟁에 쫓겨난 《색갈론》이 등장하고 막말과 고성이 란무하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부동산민원하》 발언이나 《국민의힘》의 《조선시대의 후궁》 발언, 《조선족》 발언 등 튀어나오는 막말들이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투성이어서 여야당이 모두 당내부에 《막말주의경보》를 발령하였다.

오죽하면 전문가들도 《막말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를수 있다.》, 《균형추가 무너지는건 순간》이라고 조언을 주었는가.

그 무슨 《후보단일화》문제도 민심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 《정부》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는 《자유주의상식련합》을 내와야 한다고 떠들어

남조선에서 년초부터 주요 정치적인 제들을 둘러싸고 여야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특히 2월에 들어서는 더욱 치열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전 보수 《정권》시기의 사법통단 사건에 연루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과 대법원 원장의 사퇴문제를 둘러싼 절절한 대립이 그 대표적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발의를 승인하였으며 이달초에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리고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법원을 검주위 위한 탄핵》, 《삼권분립위반》, 《거대의석을 통한 사법부결정하기》이라고 고야대

며 반발해나서고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지난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탄핵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탄핵거래설》을 내들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요구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고있다고 한다.

그 무슨 요시찰명단작성사건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은 또 다른 데라고 할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월말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전 리명박 《정권》이 《국회》의 전권과 범조인, 언론인, 시민단체인사 등 10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린데 대하여 폭로하였으며 지난 16일 정보원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조직적인 친인척법사찰을 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국회》정보위원회를 통해 정보원의 불법사찰의혹문건의 공개를 요구해나섰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보원설립이후 불법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공개시점을 재보충선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며 맞바치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리명박집권시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자기 당소속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것이라고 하면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민심의 지향

남조선 각계층에서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보도된것처럼 지난 6일 《한국대학생진보련합》(《대진련》)이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앞에서 《코로나부대 미군기지 폐쇄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하는짓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COVID-19》를 옮겨 퍼뜨리는것뿐이라고 하면서 현재 남조선강점 미군의 《COVID-19》 확진자비율은 남조선주민 확진자비율의 16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미군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마스크도 끼지 않고 평택미군기지에서 광란적인 춤판을 벌였던 미군을 기억하는가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은 우리를 지키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있으며 그들의 이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있다.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말에도 《대진련》은 《대북비라살포금지법》은 《한반도전쟁위기를

감소시키고 평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서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앞에서 반미투쟁을 벌리기도 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도 반미, 반전투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계속 활발히 전개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수성사격장 폐쇄와 직승기사격훈련중단을 요구하는 경상북도 포항지역 주민들의 항의집회와 부산항 8부두 남조선강점 미군의 새군실험폐쇄를 요구하는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투쟁, 《싸드》기지로의 공사자재와 장비의 반입을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의 주민들의 시위투쟁소식들도 널리 보도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회원들은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언급했으나 《보안법》이 있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보안법》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애청은 지난해 21대



언론장악을 위한 여야싸움

남조선에서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적인 진보언론인으로 알려진 전 《KBS》사장을 내정할것을 비롯하여 주요언론통제기관과 공영언론사들의 요직에 진보경향이 강한 인물들을 내세웠다고 전하였다. 이와 함께 보수성향의 신문, 방송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언론개혁을 위한 6대언론규제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기어이 처리하겠다고 하고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있고있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간의 마찰과 대립에 대해 남조선언론 《뉴시스》는 《야

한 《부정부패의혹》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전도 벌리고있다고 한다.

한편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위한 립법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는 여당과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보수야당사이의 마찰도 극심해지고있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6대언론규제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기어이 처리하겠다고 하고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있고있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간의 마찰과 대립에 대해 남조선언론 《뉴시스》는 《야

《허풍의 극치》, 《거짓말대잔치》

— 남조선 각계가 비난 —

대고있다.

여기에 《국민의 당》 대표를 비롯한 《3지대》 후보들은 《아권단일화》 이후 《법우파련합》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덩달아 맞장구를 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당후보들이 내놓은 서울시 련립정부나 자유주의상식련합 등의 구상은 《국민의 당》 후보지지를 끌어오기 위한것》이라고 내놓고 말하였고 《국민의 당》 후보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지지를 받으려고 미리 깔아놓은 소리》라고 비난했다.

남조선언론들은 보수야당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내놓는 《단일화》방안은 서로 상대방의 지지층을 공략하려는것이라고 하면서 야권후보들이 서로에게 《강경보수》의 색깔을 해대거나 《국민의힘》과의 《불편한 관계》를 부각하는것도 그에 후호적인 유권자들을 떼내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평하였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보수야당후보들이 동상이몽하며 계속된 부리는데 대해 한 인권인사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까지 극심한 줄담기기를 벌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한편 여야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에 남조선민심이 등을 돌리고있다고 한다.

지금 부산시장보충선거에 나선 여야당의 후보들은 저저마다 여러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현상보존정세에 열을 올리고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서울시장선거에서 수자와 부지위지만 다른것들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4년짜리 인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있고있다》고 비

판하였다. 그러면서 선거마다 등장하는 《대북공약》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는데 과연 당성이 실현될수 있을지 의문도 늘어나고있다고 평하였다고 한다.

여야당후보들의 《공약》 발표에 대해 인터넷에는 《허풍의 극치》, 《비현실적인 거짓말대잔치》라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야당의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높아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환멸은 정치세력들에게 보내는 민심의 경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령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민족의 미풍량속까지 말살하려고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가장 악독한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말살하려고 날뛰었다.

일제는 《한 나라의 문화와 그의 민족성을 알리고 하거든 먼저 풍속습관을 알아야 하며 인심수향(인민들의 지향)의 표준으로 되는 미풍량속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조선을 통치하기 어렵다》고 떠벌이면서 이를 민족동화의 《최상의 방책》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풍속과 제도에 대한 조사를 벌려놓았다.

일제는 1904년에 《법전조사국》이라는것을 조직하였으며 조선을 강점한 다음에는 《취조국》, 《구관제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조사기구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고 조선의 모든 지방들에 있는 풍속과 제도에 대한 조사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풍속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장악한 데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우선 각종 악법들을 통해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직접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미풍량속을 가혹하게 짓밟았다.

일제가 히루는 《보안법》, 《집회취체에 관한 건》과 같은 악법들에 의해 조선민족의 정치적인 집회와 결

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 는 가우와 농악놀이까지도 배가 아니었다.

오악한 일제는 조선민족의 흰옷은 풍습에 대해서까지 박해와 탄압의 마수를 뻗었다. 예로부터 밝고 깨끗한것을 좋아한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흰옷은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이 반영되어있었다.

특히 일제의 조선강점후 우리 민족의 흰옷은 일제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완강한 항거의 정신, 반일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적단합의 상징으로 되었다.

이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긴 일제는 그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흰옷을 입는것은 비경제적이니 색옷을 입어야 한다》고 떠벌이며 이른바 《색옷장려운동》을 벌려 조선사람들의 흰옷은 풍습을 악랄하게 탄압하였으며 헌병, 경찰, 주구, 강제노동들을 내몰아 걸가는 조선사람의 흰옷에 먹물을 뿌리는 행패까지 부리었다.

하얀 조선옷차림대신에 누런 색감의 《욱진복》에 전투모를 쓰고 《게다》를 신고 다닐것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조선녀성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가 풍겨있는 조선치마저고리대신 저들의 일본식옷차림을 강요하였다.

한편 일제는 강권적인 탄압과 함께 이른바 《개량》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생활개선》 등 여러가지 구실밑에 우리 나라의 미풍량속을 하나하나 개악하는 방법으로 좀먹어 하였으며 왜색, 왜풍을 부식시켜 조선의 풍속을 완전히 일본화하는 방법으로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가장 반동적인 일본 《친황》송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한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백가쟁명식

남조선에서 년초부터 주요 정치적인 제들을 둘러싸고 여야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특히 2월에 들어서는 더욱 치열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전 보수 《정권》시기의 사법통단 사건에 연루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과 대법원 원장의 사퇴문제를 둘러싼 절절한 대립이 그 대표적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발의를 승인하였으며 이달초에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리고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법원을 검주위 위한 탄핵》, 《삼권분립위반》, 《거대의석을 통한 사법부결정하기》이라고 고야대



《창씨개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여 관청에 모인 조선인민들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조령의 길극의 모듬-광곡모듬

반만년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그 기간에 창조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해지고있다.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의 통선마루에 있는 단군릉은 동방의 강력한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의 무덤이다.

우리는 반만년에 걸치는 민족사의 시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훌륭히 개건된 단군릉을 찾았다.

이번에도 동행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리일심연구사의 해박한 설명은 우리가 민족의 고대역사와 단군릉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계속하여 단군릉개건기념비, 단군릉기적비 등을 차례로 돌아본 후 계단을 올라 릉으로 향하였다.

사회를 끝내고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단군릉기적비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선조들은 강동에 있는 단군릉을 실재했던 단군의 무덤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지내어왔고 지금도 단군의 즉위식날인 개천절이 오면 여기서는 민족풍속에 따라 단군제례가 진행되고 있다.

단군제례가 진행되기도 이제는 5천여년, 하지만 우리 민족이 자기의 진정한 역사를 찾은것은 어느때부터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90년대에 진행된 단군릉발굴과정에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이 발굴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방의 선진명문국이고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게 되었었던것이다.

문득 단군릉개건기념비에 새긴 현시의 구절이 생각났다. 동방의 유구한 나라 옛 조상의 기상을 안고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아래 거언히 솟아오른 단군릉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거언히 솟아있는 민족의 시조릉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꼈다. 본사기자 김 철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계 체조선수권대회에서 람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린 기계체조선수, 그가 김광속이다. 어렸을 때부터 앞치마, 뒤전화를 자유자재로 하여 사람들을 놀래우던 김광속은 그후 평양체육관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다.

유능한 감독들의 지도밑에 여러가지 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그는 국내선수권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1991년 9월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대회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고저평행봉경기에 출전한 김광속선수의 동작이었다.

그는 1989년에 있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높은 봉에서의 다리벌려 앞공중돌기를 한 다음 다시 봉잡고 턴이 180° 방향바꾸어 아래봉잡기와 같은 종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김광속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높은 기술동작들을 연속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환성을 올렸다. 경기가 끝난 후 전문가들은 고저평행봉운동이 국제경기종목으로 출현한 후 지난 60여년간 이렇듯 독특한 기교동작은 처음 본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그는 여러차례의 국제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녔으며 인민체육인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1991년 9월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대회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고저평행봉경기에 출전한 김광속선수의 동작이었다.

그는 1989년에 있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높은 봉에서의 다리벌려 앞공중돌기를 한 다음 다시 봉잡고 턴이 180° 방향바꾸어 아래봉잡기와 같은 종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김광속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높은 기술동작들을 연속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환성을 올렸다. 경기가 끝난 후 전문가들은 고저평행봉운동이 국제경기종목으로 출현한 후 지난 60여년간 이렇듯 독특한 기교동작은 처음 본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그는 여러차례의 국제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녔으며 인민체육인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천지산천어. 천지산천어의 몸길이는 보통 40~50cm, 최고 85cm이며 몸질량은 보통 0.5kg, 최고 7.7kg이다.

천지산천어는 크기가 일반산천어보다 비할바없이 크며 소화기관인 아가미뱃살수는 2~3개 적고 너스레빨수는 3~4개 많다.

천지산천어는 각종 곤충들과 바닷물에 날려와 떨어지는 지상곤충들, 지어 작은 새들까지 덮쳐먹는다.

산천어가운데서 유라시아대륙의 남쪽 제일 높은 곳에 분포된것으로 하여 천지산천어는 학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사기자

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란약기의 하나이다. 2~3세기 고대국가였던 진국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슬을 비롯한 현악기와 여러 가지 형태의 방울, 북, 피리 등의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물론 그때에 사용하던 슬의 구조와 형태, 연주방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다만 가야금의 전신악기로 추측할만하다. 그것은 고려시대에 궁중음악에 사용하던 슬의 형태와 구조가 가야금과 비슷하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거문고. 거문고는 가야금과 같이 긴 판형으로 된 공명체와 명주실을 꼬아 만든 6개의 줄로 된 악기이다.

주로 독주악기로 많이 리용되었으며 그밖에 노래와 무용반주 또는 기악합주에도 쓰였다. 본사기자

체온계는 왜 42℃까지 있는가. 체온계에는 눈금이 최고 42℃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체온을 36~37℃로 유지하는데는 체온이 42℃까지밖에 표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체온은 한정없이 오를수 있다.

체온이 41℃를 넘으면 사람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42℃가 되면 생명을 잃는다. 이런것으로 하여 체온계에는 눈금이 42℃까지밖에 표시되어있지 않다. 본사기자

글씨 한 폭 값. 어떤 사람이 글 잘 쓰는 선비를 불러놓고 글씨 한 폭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선비가 순식간에 글을 쪽 내려쓰자 그 사람이 《수고했소이다. 값을 얼마나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백냥만 주십시오.》

민속명절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을 민속명절로 이르는 말로서 보통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4일은 《작은보름》, 15일은 《큰보름》,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민속놀이.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우리 선조들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이날에 특별한 이치를 띤것은 달맞이였는데 쟁반같은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그해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달이 뜰 때면 남녀로소 할것없이 앞을 다투어 달맞이를 갔다.

달맞이를 한 다음에는 해불을 켜고 들판에 나가 눈두렁이나 발취락의 잡초나 곤충들을 태워버리는 귀불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바줄당기기, 바람개비놀이, 다리밟이놀이 등 다채로운 명절놀이들로 분위기를 돋구었다.

민속음식.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으로는 약밥, 오곡밥, 복쌈, 9가지 마른나물반찬 등이 이채를 띠었다.

약밥은 찰밥에 꿀과 참기름을 두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껍질을 벗긴 밤과 대추를 넣어 찌내어 만들었다.

오곡밥은 벼, 조, 수수, 기장, 팥 등을 섞어서 지은것으로서 《오곡잡밥》이라고도 하였다.

이날에 사람들은 쌀을 싸먹으면서 그해에 풍작을 이루고 많은 복이 차례지기를 기원했다.

나물반찬은 산나물, 바다나물, 호박과 무우오가리, 버섯 등 9가지의 마른나물을 볶거나 무쳐서 만든것인데 이 나물반찬을 먹어야 그해에 더위를 타지 않고 잘 자는다고 일러왔다.

올해의 정월대보름은 2월 26일이다. 본사기자

속 달과 뜻

◆ 초사월달은 쟁 머느리가 본다. ◆ 음력 초사월날에 뜨는 달은 잠깐 떴다가는 곧 지므로 부지런한 머느리가 볼수 있다는 뜻으로 초사월의 달이 잠깐사이에 짐을 형성적으로 이르는 말.

◆ 몹시 재고 빠른 사람만이 무엇을 보거나 얻을수 있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 새벽달 보려고 어스름달 안 보라.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은 향신료이지만 효능면에서 보면 어느 식품재료 못지 않게 뛰어나다.

특이한 매운맛생분은 몸의 찬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따스함을 유지하므로 생강을 먹으면 기침, 감기, 몸살, 몸아름 등이 완화된다.

생강은 피속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피가 굳어지는것을 막으며 똑같이 매운맛을 내는 마늘이나 양파보다 피응고를 막고 피순환을 돕는 효과가 크다.

또한 해열작용을 하고 소염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도 나타내며 산화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본사기자

연 때가 왔음을 알았다. 석철복은 얼굴을 돌려 정방산을 한바퀴 휘돌러보았다.

너무나도 낮익은 산천이 왜 이따지도 마음설레이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너무도 잠이 든 산천. 이 땅에서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오래도록 살고싶었다.

코지 않은 소원도 생의 마음이다. 석철복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 이젠 그저 돌이 아니야. 정방산성을 지켜온 의로운 영혼들의 넋이다. 살아서 지킨 고향을 죽어서도 안고 살려는 그들의 마음이야, 마음!)

돌무지에서 손을 뻗 석철복은 이끌거리는 두눈으로 왜놈들을 쏘아보았다.

돌무지를 보자 주춤거리던 왜놈들이 칼날을 번뜩이며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들고있었다.

왜놈들과의 거리는 이제 몇보... 그 몇보안에 석철복의 생사가 놓여있었다. 석철복은 젊은이였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아온 석철복이었고 고향을 지켜 의롭게 죽는것이 또한 그의 소원이었다. 지금 석철복은 자기에게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백두산천치의 물속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과 하등수생생물들이 생겨났지만 이곳으로 흘러드는 물고기가 없으므로 물고기는 없었다.

공화국의 어류학자들은 1960년 7월 백두산천지에 처음으로 두만강의 산천어와 삼지연의 붕어를 넣어주었다.

그후 몇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옮겨넣어 천지의 엄숙한 기상기후조건과 고유한 생태적환경에 적응하게 하였다.

어로부터 전해오는 민속악기. 슬과 거문고. 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란약기의 하나이다.

2~3세기 고대국가였던 진국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슬을 비롯한 현악기와 여러 가지 형태의 방울, 북, 피리 등의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물론 그때에 사용하던 슬의 구조와 형태, 연주방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다만 가야금의 전신악기로 추측할만하다.

그것은 고려시대에 궁중음악에 사용하던 슬의 형태와 구조가 가야금과 비슷하기때문이다.

거문고. 거문고는 가야금과 같이 긴 판형으로 된 공명체와 명주실을 꼬아 만든 6개의 줄로 된 악기이다.

주로 독주악기로 많이 리용되었으며 그밖에 노래와 무용반주 또는 기악합주에도 쓰였다.

체온계는 왜 42℃까지 있는가. 체온계에는 눈금이 최고 42℃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체온을 36~37℃로 유지하는데는 체온이 42℃까지밖에 표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체온은 한정없이 오를수 있다.

체온이 41℃를 넘으면 사람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42℃가 되면 생명을 잃는다. 이런것으로 하여 체온계에는 눈금이 42℃까지밖에 표시되어있지 않다. 본사기자



사화

돌탑에 깃든 넋 (5)

글 장성철, 그림 김윤일

주위를 둘러 돌을 찾아 보았으나 손에 잡을 만한 돌은 보이지 않으니 석철복의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가었다.

여기까지 놈들을 끌고왔으니 이제 고지 정방산성 군사들의 눈에 놈들이 걸려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놈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를 면치 못할것이었다.

석철복은 제손으로 한놈의 왜놈이라도 더 바살내고싶었으나 돌이 없었다.

심리묘역에도 눈썰미 막대긴 있는데 무슨 산에 맞춤형 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에이,젠장!

안타깝게 사방을 휘돌러보던 석철복의 눈이 한순간 반짝 빛났다.

잘 깎아다듬어 손에 잡기 맞추어져 생긴 수많은 돌들이 돌기돌기 쌓여져있는 정방산의 유명한 돌탑이 눈에 안겨왔던것이었다.

기쁨에 겨워 얼른 돌탑으로 다가가 손을 뻗치려던 석철복은 갑자기 뇌리를 치는 생각에 훌쩍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이다. 예로부터 정방산에는 묘가 하나도 없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정방산을 대단히 신성하게 여겨왔기때문에 여기에 묘를 쓰면 그 신성함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었던것이다.

그래서 어느때부터인가 정방산성을 쌓다가 죽은 사람이거나 이성을 지켜싸우다 숨이 진 사람이면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것이 정방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곳에 그들의 넋이런듯 돌 하나씩을 정히 다듬어 올려놓기 시작했것이 이렇게 탑을 이루고있다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방산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위해 의롭게 죽기를 원하며 여기에 자기의 넋이 깃든 돌 하나가 올라있기를 그리고 소원하는것이

이다. 석철복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 이젠 그저 돌이 아니야. 정방산성을 지켜온 의로운 영혼들의 넋이다. 살아서 지킨 고향을 죽어서도 안고 살려는 그들의 마음이야, 마음!)

돌무지에서 손을 뻗 석철복은 이끌거리는 두눈으로 왜놈들을 쏘아보았다.

돌무지를 보자 주춤거리던 왜놈들이 칼날을 번뜩이며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들고있었다.



지마순간이 오면 그토록 간절했으므로 되는지 여지 몰랐다.

석철복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웅얼거리며 엉겨돌았다.

울가을에 천성봉에 다시 올라 잘 익은 풋밤을 다시 딸순 없을까? 금정굴 약수터의 정갈한 샘물을 다시한번